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김해란¹ · 김계하²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¹, 조교수²

Cohabitation, Loneliness, and Family Fun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Hae Ran¹ · Kim, Kye Ha²

¹Doctoral Student,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unmarried cohabitation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loneliness and family fun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cohabitation experience and those with no experience in Korea.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13 university students was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and the Chonnam area of Korea. Data collection methods included: (a) a demographic questionnaire, (b) a questionnaire related to cohabitation, (c) UCLA scale: 20 items on a 4-point scale (c) Family APGAR questionnaire: 5 items on a 3-point scale. SPSS/WIN 17.0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χ^2 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In this study, 21.1%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s of unmarried cohabitation. The cohabitation experience was related to gender, age, and monthly incom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Loneliness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mily function scores in the non-cohabitation group. **Conclusion:** To improve sex life of the university students, healthcare providers including school nurses may consider family function.

Key Words: Student, Loneliness, Family func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를 통한 성문화의 개방과 전통적 가족질서의 해체로 인해 젊은 층에서의 혼전 동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Caltabiano & Castiglioni, 2008). 2004년 Heo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2.4%가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Kim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5.7%가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9년 아르바이트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몬이 대학생 1,16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동거 인식'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84.4%가 '필요한 경우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 등을 구해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Today Korea, 2009) 혼전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 간의 동거는 여론이 부정적이든 아니든 이젠 대학가의 주변 문화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혼전 동거는 거의 대부분 혼전 성관계를 동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파생된다. 혼전 성생활의 증가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낙태나 입양 비율이 증가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Lee, 2007). 학생의 경우 이성과의 동거는 경제적 문제나 성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Meier & Allen, 2008). Kim (2004)은 대학생의 동거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지

주요어: 대학생, 외로움, 가족기능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Kye Ha,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6, Fax: 82-62-230-6329, E-mail: kyehakim@hanmail.net

투고일 2010년 8월 3일 / 수정일 2010년 9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25일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Schoen, Landale과 Daniels (2007)는 동거를 하는 대상자 중 5명 중의 한 명만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Lichter, Qian과 Mellott (2006) 역시 동거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결혼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이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동거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사회일수록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Liefbroer & Dourleijn, 2006), 관계가 끝날 경우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Go, 2006). 또한 동거를 하는 여성들이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보다 좀 더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Klausli & Owen, 2009) 보고되고 있어 건강관리 제공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 측면을 고려하여 혼전 동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모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혼전 동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eo (2004)의 연구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동거를 하려하는 이유로 남학생의 경우 '사랑해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서', '외로워서',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등을 보고하였고, 여학생은 '사랑해서'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외로워서',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또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동거를 하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서'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 중 '외로움'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정서적 경험으로, 대학생이 해당되는 청년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Kim & Kang, 1993). 대학생들이 이러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거를 선택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실제로 동거를 선택했을 경우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를 경험한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 간에 외로움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외로움이 혼전 동거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인생의 전부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가족구조가 무너지거나 부모의 결혼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자녀의 혼전 동거 비율이 높는데 Cunningham과 Thornton (2006)은 부모의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태도가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Woo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볼 때, 가족 내 기능이 자녀의 향후 결혼관이나 동거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혼전 동거를 경험한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가족기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족기능이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혼전 동거 예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 실태와 외로움 및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혼전 동거 경험 실태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 동거 경험 유무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외로움 및 가족기능을 알아본다.
-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대상자의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 실태와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전남에 위치한 3개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남녀 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alpha = .05$, $power = .80$, 중간크기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Cohen, 1988) 최소 표본수가 88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로움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 (1980)가 개발하고 Kim (1997)이 번안한 한국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 10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본 10개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부정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주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Smilksten (1978)이 개발하고 Kang, Young, Lee, Lee와 Shim (1984)이 번역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상호간의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나타내는 5개의 가족기능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을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2점(항상 만족한다)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가능한 총합은 0점에서 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본 연구자가 광주 및 전남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을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후에 다시 각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 과정 및 참여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 37부를 제외한 총 213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혼전 동거 경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 동거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사용하였으며 cell이 5보다 적은 것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외로움과 가족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 31.5%, 여자 68.5%이었고 평균 연령은 22.14세로 25세 미만인 85.0%, 25세 이상이 15.0%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53.5%였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46.5%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36.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절반 이상(56.8%)이 현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경우는 38.5%였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42.3%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대상자의 55.4%가 21만원 이상에서 40만원 미만이었으며, 20만원 이하가 23.5%이었다. 대다수 대상자(92.0%)의 부모가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는 중이었고 별거나 이혼 등인은 경우는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상자들의 거주 상태는 부모와 동거 중인 대상자가 58.7%,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22.1%이었으며, 대상자들의 77.9%는 가족 간의 갈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혼전 동거 경험 실태

전체 대상자 중 21.1%가 최근 1년 이내에 혼전 동거의 경험이 있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 ‘반대한다’가 34.3%, ‘찬성한다’가 14.5%로 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Variables	n (%) or M±SD
Gender	
Male	67 (31.5)
Female	146 (68.5)
Age(year)	22.14±2.53
< 25	181 (85.0)
≥ 25	32 (15.0)
Religion	
Have	99 (46.5)
Have not	114 (53.5)
Grade	
Freshman	77 (36.2)
Sophomore	84 (39.4)
Junior	45 (21.1)
Senior	7 (3.3)
Joining any clubs	
Yes	92 (43.2)
No	121 (56.8)
A stranger from different areas	
Yes	82 (38.5)
No	131 (61.5)
School satisfaction	
Satisfaction	112 (52.6)
Moderate	90 (42.3)
Dissatisfaction	11 (5.1)
Monthly income (10,000 won)	
< 20	50 (23.5)
≥ 20~ < 40	118 (55.4)
≥ 40	45 (21.1)
Parent's marital status	
Cohabitation	196 (92.0)
Others	17 (8.0)
Living arrangement	
With parent	125 (58.7)
Dormitory	23 (10.8)
A one-room apartment	47 (22.1)
Others	18 (8.4)
Family conflict	
Severe	12 (5.7)
Moderate	35 (16.4)
Rarely	166 (77.9)

타났다.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와 ‘결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가 각각 25.8%, ‘상대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서’가 22.6%,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이유는 12.9%이었다.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71.8%, 도덕성의 문제가 14.6%로 나타났

다. 혼전 동거 경험자들의 평균 동거 기간은 1개월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가 24.4%이었다. 동거를 선택한 이유는 대다수(71.1%)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고, 17.8%가 ‘돈을 아낄 수 있어서’, 11.1%가 ‘사랑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83.6%가 지금까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성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받은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교 33.7%였다. 성교육을 한 사람은 일반교사가 46.1%로 가장 많았고, 전문강사가 23.0%, 보건교사는 14.6%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 시 피임은 대부분(80.0%)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 52.8%, 여성의 경구피임약이 25.0%였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 동거 경험 유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 동거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성별($\chi^2=21.56, p<.001$), 연령($\chi^2=6.06, p=.014$), 한 달 용돈($\chi^2=7.15, p=.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혼전 동거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25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25세 이상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혼전 동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 달 용돈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순으로 동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외로움과 가족기능

대상자의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외로움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기능($t=-3.65,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가족기능 정도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낮았다(Table. 4).

5.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의 관계

대상자의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혼전 동거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r=-.346, p<.001$) 가족기능이 낮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2. State of Cohabitation (N=213)

Characteristics	n (%)
Cohabitation experience	45 (21.1)
Yes	168 (78.9)
No	
Opinion about cohabitation	31 (14.5)
Agree	73 (34.3)
Disagree	109 (51.2)
I dont' care for the cohabitation	
The reason of cohabitation agreement (n=31)	8 (25.8)
For love	8 (25.8)
For the experience of marriage	7 (22.6)
To understand a partner	4 (12.9)
For emotional stability	4 (12.9)
No reason	
The reason of cohabitation disagreement (n=73)	10 (4.7)
Marriage	31 (14.6)
Morality	19 (8.9)
Social awareness	153 (71.8)
No reason	
Duration of cohabitation (month) (n=45)	15 (33.3)
< 1	11 (24.4)
1~3	10 (22.2)
4~6	9 (20.1)
≥ 7	
The reason of cohabitation (n=45)	8 (17.8)
Saving money	5 (11.1)
For love	32 (71.1)
No reason	
Experience of sex education	178 (83.6)
Yes	35 (16.4)
No	
The last time I received sex education (n=178)	11 (6.2)
Elementary school	23 (12.9)
Middle school	83 (46.6)
High school	61 (34.3)
University	
Sex educator (n=178)	82 (46.1)
General teacher	26 (14.6)
School nurse	41 (23.0)
Specialist	22 (12.4)
Internet	7 (3.9)
Others	
Using contraception (n=45)	36 (80.0)
Yes	9 (20.0)
No	
Contraceptive measures (n=36)	9 (25.0)
Oral contraceptive	19 (52.8)
Condom	3 (8.3)
Rhythm method	5 (13.9)
No response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21.1%가 최근 1년 이내에 혼전 동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여성의 50% 정도가 거의 24세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은 동거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Schoen et al., 2007)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 및 사이버를 통해 조사한 Kim (2009)의 연구에서 전체 대학생의 5.7%가 혼전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높은 결과이다. Kim (2009)의 연구가 인터넷을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는 좀 더 높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의 혼전 동거 경험 비율은 이보다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차이나 대학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혼전 동거 비율이 더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혼전 동거에 대해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 '찬성한다'가 14.5%로 혼전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가 절반 이상(65.7%)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Kwon과 Chi (2005)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69.3%가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과 Na (2004)의 연구에서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남녀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혼전 동거에 허용적인 것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동거에 대한 가치관 및 변화를 조사한 Eun과 Lee (2005)의 연구에서 동거에 대한 태도가 나라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1.2%가 혼전 동거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여 혼전 동거를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성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혼전 동거나 혼전 성관계가 향후 자신의 삶이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혼전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여러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 이를 교정해 주고, 상담해 줄 필요가 있다.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랑하기 때문에'와 '결

Table 3. Cohabit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habitation (n=45)	Non-cohabitation (n=168)	χ^2	p
		n (%)	n (%)		
Gender	Male	27 (60.0)	40 (23.8)	21.56	<.001
	Female	18 (40.0)	128 (76.2)		
Age (year)	< 25	33 (73.3)	148 (88.1)	6.06	.014
	≥ 25	12 (26.7)	20 (11.9)		
Religion	Have	18 (40.0)	81 (48.2)	0.96	.327
	Have not	27 (60.0)	87 (51.8)		
Grade	Freshman	19 (42.2)	58 (34.5)	-	.056
	Sophomore	19 (42.2)	65 (38.7)		
	Junior	4 (8.9)	41 (24.4)		
	Senior	3 (6.7)	4 (2.4)		
Joining any clubs	Yes	16 (35.6)	76 (45.2)	1.36	.244
	No	29 (64.4)	92 (54.8)		
A stranger from different areas	Yes	21 (46.7)	61 (36.3)	1.61	.205
	No	24 (53.3)	107 (63.7)		
School satisfaction	Satisfaction	21 (46.7)	91 (54.2)		.587
	Moderate	22 (48.9)	68 (40.5)		
	Dissatisfaction	2 (4.4)	9 (5.4)		
Monthly income (10,000 won)	< 20	9 (20.0)	41 (24.4)	7.15	.028
	≥ 20~ < 40	20 (44.4)	98 (58.3)		
	≥ 40	16 (35.6)	29 (17.3)		
Parent's marital status	Cohabitation	42 (93.3)	154 (91.7)		1.000
	Others	3 (6.7)	14 (8.3)		
Living arrangement	With parent	24 (53.3)	101 (60.1)		.229
	Dormitory	3 (6.7)	20 (11.9)		
	A one-room apartment	15 (33.3)	32 (19.0)		
	Others	3 (6.7)	15 (8.9)		
Family conflict	Severe	3 (6.7)	9 (5.4)		.902
	Moderate	7 (15.6)	28 (16.7)		
	Rarely	35 (77.8)	131 (78.0)		

Table 4. Loneliness and Family Function according to Cohabitation Experience

Variables	Cohabitation (n=45)	Non-cohabitation (n=168)	t	p
	M±SD	M±SD		
Loneliness	37.58±9.02	36.05±8.62	1.04	.298
Family function	5.33±1.95	6.68±2.20	-3.65	<.001

Table 5. Correlation of Loneliness and Family Function

Variables	Cohabitation (n=45)		Non-cohabitation (n=168)	
	Family function	Loneliness	Family function	Loneliness
	r (p)	r (p)	r (p)	r (p)
Family function	1		1	
Loneliness	-.192 (.207)	1	-.346 (<.001)	1

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가 각각 25.8%, '상대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서'가 22.6%,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이유는 12.9%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Kim, 2009; Kwon & Chi, 2005)에서 사랑과 정서적 안정이 큰 비율을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71.8%가 혼전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꼽을만한 것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도덕성의 문제나 사회인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연구들(Kim, 2009; Kwon & Chi, 2005)에서도 '동거 전력이 사회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성적 도덕성 문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반대 이유로 조사된 것과 일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막연히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작은 동기가 생기면 동거를 선택할 여지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전 동거 경험자들의 평균 동거 기간은 1개월 미만인 33.3%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가 24.4%인 것으로 보고되어 동거 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Kim, 2009; Lichter et al., 2006; Schoen et al., 2007)도 대개 동거를 하는 대상자들은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끝이 난다고 보고하였다. 동거 기간이 1년 안에 종결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결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빠른 기간 안에 종결되고 이는 동거가 매우 불안정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대상자들과 같은 젊은 청년들의 경우 외국과 달리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게 되므로 동거와 동시에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안정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자유롭고 강제성이 없는 연애 개념의 혼전 동거는 일시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끊어져 버리게 되고 이는 결국 여러 번의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혼전 동거경험자들이 동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대다수(71.1%)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소수 의견으로 '돈을 아낄 수 있어서'와 '사랑해서'가 제시되었다.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와 '결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라고 답을 했지만 실제 본인들이 동거를 선택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

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은 했지만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거 기간은 실상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그 동거 상대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결국 자신의 동거 경험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는 쾌락중심의 성을 더욱 더 확산시키고, 불안정한 관계에서 오는 삶의 불만족, 정상 가족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간호사들은 대학생들이 높은 교육 수준만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83.6%가 지금까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성교육은 주로 일반교사나 전문강사에게 받았고, 보건교사에게 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14.6%에 지나지 않았다. Cho (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개 성에 대한 지식을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얻는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Yim, 2005; Yoon, Jeon, & Park, 2009)에서 성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교육 후 효과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전 성관계 시 피임은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콘돔을 사용하거나 본인이나 상대방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Lee, 2007) 남학생들은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임하는 것을 진지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Kim, 2005). 또한 동거와 결혼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에서 더 높기 때문에(Go, 2006) 성인으로서 아직 미성숙한 대학생들이 혼전 동거를 통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항상 임신과 낙태의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임 성공률이 낮은 피임법 사용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증가시켜 신체적, 정신적 소모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안전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한 달 용돈과 혼전 동거 경험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혼전 동거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학생의 47.0%가 이성과의 동거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반면, 남학생은 85.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Cho (2004)의 연구나 젊은 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전 성관계 비율이 높았던 Caltabiano와 Castiglioni (2008)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Kim (2009)도 여자에 비해 남자가 동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대학생들의 성 인식을 조사한 연구(Kim, 2005)에서 이들은 성을 ‘충동적 관계’로 경험하였고 음란매체로 형성된 성가치관은 여자를 욕구 해소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 성관계의 수단으로 이성교제를 하기도 한다. 이는 성 윤리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비난이 다르게 적용됨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고취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성에 대한 남녀 각각의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한 후에 이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연령에서는 25세 미만은 25세 이상보다 오히려 동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체적으로는 성인에 도달했고 성적 지식도 증가했지만 성적 정체감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이른 시기에 충동적으로 동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진지한 고민 없이 선택되어진 동거는 미래에 많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충동적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에서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성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 달 용돈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순으로 혼전 동거 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회적 계층에 따른 동거 실태를 조사한 Meier와 Allen (2008)의 연구에서 수입이 적은 청년들이 결혼보다는 좀 더 동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나 대개 저소득층에서 동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Lichter 등 (2006)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동거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또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이성이 아닌 동성과 동거하여도 되는데 굳이 이성과의 동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혼전 동거 경험의 유무에 따른 외로움을 조사한 결과 동

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외로움 정도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 보다 약간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혼전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 중의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여겼지만 실제 조사 결과 외로움은 혼전 동거 경험과 유의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파트너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방할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섹스 파트너로서의 동거 상대를 찾기 때문에 결국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과의 혼전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보건교사나 청소년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등은 외로움과 같이 대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혼전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보다 가족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족기능과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 간의 관계를 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가족기능이 낮을수록 다른 애착대상을 찾게 된다는 Park (1998)의 연구결과나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감소된 안녕상태를 보이며, 본인도 역시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Brown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성인기 초기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려는 시기이지만 가족자원이 개인의 삶의 질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가족기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이를 대상자의 삶에 긍정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혼전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혼전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서만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 정도가 낮을수록 가족기능이 좋거나 가족기능 정도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Park, 1998)와 일치한다. Rokach (2005)은 충족되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청년들은 외로움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과업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에 밀접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원활한 기능을 하는 가족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서는 외로움과 가족기능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나 이러한 결과는 혼전 동거의 경험이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혼전 동거가 실제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가족기능이 혼전 동거를 선택하는데 있어 관련된 요인일 것임을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생들로 대상으로 동거경험그룹과 비경험그룹을 종속변수로 두고 외로움과 가족기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하는 추가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전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잘 파악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 실태와 외로움 및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혼전 동거 경험 유무는 성별, 연령, 한 달 용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전 동거 경험에 따라 가족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전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가족기능과 외로움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성별이나 연령, 경제상태를 고려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대학생들의 가족기능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혼전 동거자들이 겪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혼전 동거 예방을 모색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rown, S. L. (2006). Family structure transitions and adolescent well-being. *Demography*, 43, 447-461.
- Caltabiano, M., & Castiglioni, M. (2008). Changing family formation in Nepal: Marriage, cohabitation and first sexual intercours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4, 30-39.
- Cho, M. H.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ulture of sexual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Center Dong-A University*, 32, 5-37.
- Choi, M. S., & Na,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318-33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nningham, M., & Thornton,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 659-672.
- Eun, K. S., & Lee, Y. S. (2005). Family valu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1), 107-132.
- Go, G. A. (2006). *A study on values of marriage and outlooks of children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Heo, E.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Kang, S. K., Young, B. B., Lee, H. R., Lee, D. B., & Shim, U. T. (1984). A study of family APGAR scores for evaluating family fun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5 (12), 6-13.
- Kim, J. Y. (2004). *Study on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gender relationship through living toge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H. (200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as attitude of cohabitation in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4), 871-879.
- Kim, Y. S. (2005). *The perception of sexuality about the male students i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 Kim, J. H., & Kang, S. H. (1993). The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networks according to life-span stage.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7, 119-135.
- Klausli, J. F., & Owen, M. T. (2009). Stable maternal cohabitation, couple relationship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me environment in the child's first two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103-106.
- Kwon, M. K., & Chi, Y. S. (2005). A study on co-habitation. *Human Life Science*, 8, 1-19.
- Lee, M. H. (2007).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who made*

- a decision to raise a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ichter, D. T., Qian, Z., & Mellott, L. M. (2006). Marriage or dissolution? Union transitions among poor cohabiting women. *Demography*, *43*, 223-240.
- Liefbroer, A. C., & Dourleijn, E. (2006). Unmarried cohabitation and union stability: Testing the role of diffusion using data from 16 European countries. *Demography*, *43*, 203-221.
- Meier, A., & Allen, G. (2008).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ifferences by social class. *New Directions for Child & Adolescent Development*, *119*, 25-39.
- Park, S. Y. (1998).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okach, A. (2005). The causes of loneliness in homeless youth. *Journal of Psychology*, *139*, 469-480.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hoen, R., Landale, N. S., & Daniels, K. (2007). Family transitions in young adulthood. *Demography*, *44*, 807-820.
- Smiksten, G. (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6*, 1231-1240.
- Today Korea (July, 2009). *University students 43% "cohabitation, agreement"*. Retrieved October 26, 2009, from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97>
- Yim, C. O.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ex education programme for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 Yoon, Y. K., Jeon, S. K., & Park, J. Y. (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 73-92.
- Woo, S. A. (2009). *Effects of interactive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youth on the peer conflict,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